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소비자물가인상을 반영 시 2011년 대비 2023년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 20.8%, 사립 19.8%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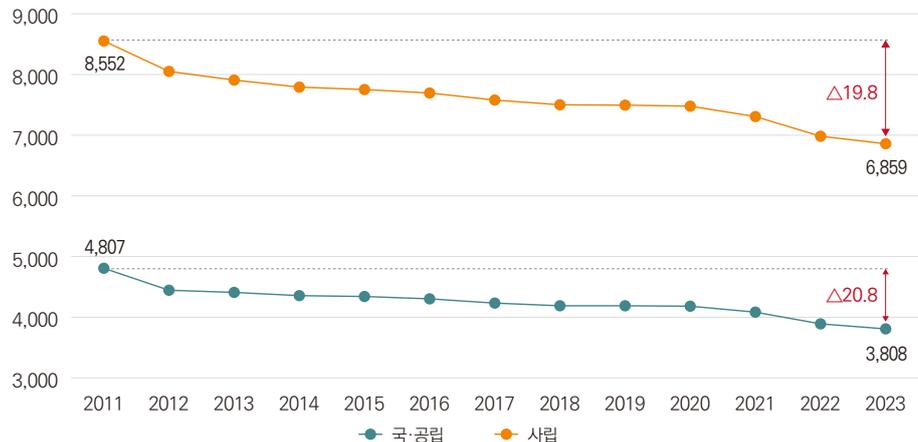
- 2023년 소비자물가인상을 반영한 평균 실질등록금은 국·공립대학 380만 8천원, 사립대학 685만 9천원으로, 2011년 대비 각각 20.8%, 19.8% 인하 수준임
 - 2023년 학생 1인당 연평균 명목등록금은 국·공립대학 420.3만원, 사립대학 756.9만원으로, 전년(2022년) 대비 각각 1만 2천원, 사립대학은 4만 8천원 증가하였으나,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국·공립대학 2.7%, 사립대학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경우, 국·공립(8개 교육대학) 3.0 ~ 4.04%, 사립(9개교) 1.0 ~ 4.04% 인상함
 - 등록금 인상 상한률 적용 등록금 대비 2023년 평균 명목등록금은 국·공립대학 32.5%, 사립대학 29.7% 낮은 수준임

〈표 1〉 연도별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 상한률 적용 시 등록금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1년 대비 증감률	
소비자 물가인상률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	-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89.9	91.8	93.0	94.2	94.9	95.8	97.6	99.1	99.5	100.0	102.5	107.7	110.35*	-	
등록금 인상 상한률	5.20	4.85	4.55	3.75	2.40	1.65	1.50	1.80	2.20	1.90	1.20	1.70	4.05	-	
국·공립	명목	4,319	4,081	4,101	4,103	4,119	4,121	4,133	4,151	4,167	4,182	4,186	4,191	4,203	△2.7
	실질	4,807	4,445	4,409	4,356	4,342	4,303	4,233	4,189	4,182	4,084	3,891	3,808	△20.8	
	인상 상한률 적용 등록금	4,564	4,786	5,003	5,191	5,315	5,403	5,484	5,583	5,706	5,814	5,884	5,984	6,226	-
	인상 상한률 적용 명목 대비 비율	△5.4	△14.7	△18.0	△21.0	△22.5	△23.7	△24.6	△25.6	△27.0	△28.1	△28.9	△30.0	△32.5	-
	명목	7,684	7,392	7,355	7,340	7,353	7,370	7,400	7,432	7,455	7,478	7,490	7,521	7,569	△1.5
	실질	8,552	8,051	7,908	7,792	7,752	7,695	7,579	7,501	7,495	7,478	7,307	6,983	6,859	△19.8
사립	인상 상한률 적용 등록금	7,896	8,279	8,655	8,980	9,195	9,347	9,487	9,658	9,871	10,058	10,179	10,352	10,771	-
	인상 상한률 적용 명목 대비 비율	△2.7	△10.7	△15.0	△18.3	△20.0	△21.1	△22.0	△23.0	△24.5	△25.7	△26.4	△27.3	△29.7	-
	명목	4,319	4,081	4,101	4,103	4,119	4,121	4,133	4,151	4,167	4,182	4,186	4,191	4,203	△2.7

주 1) 대상: 4년제 대학(일반, 산업, 교육) 대상 분석(방송통신대, 사이버대, 기술대, 각종대학, 특별법대학, 특별법국립 제외), 캠퍼스, 분교 포함
 2) 평균등록금= 학부 등록금 총수입(계열별 학년별)/ 입학정원, 연간 기준임
 3) 2023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4) △는 감소를 의미함
 5) 실질: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명목(경상가) 금액을 조정
 자료: 대학정보공시(23.05.04. 인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3.05.09. 인출)



〔그림 1〕 설립 유형별 평균 실질등록금 변화 추이

OECD 주요국 연평균 대학 등록금 비교 결과, 우리나라만 2010/2011년 대비 2019/2020년 국·공립 \$581, 사립 \$762 각각 감소

● OECD 주요국의 등록금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등록금이 2010/2011년도 대비 2019/2020년도에 인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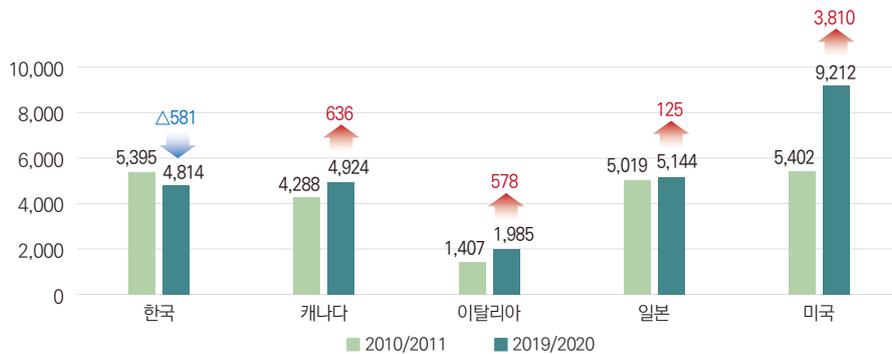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15년간 동결·인하로 인해, 국·공립 대학의 경우 \$581 감소, 사립대학의 경우 \$762 감소함
※ 주요국 외에 타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인하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등록금(명목, 실질)이 인하되었음을 OECD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표 2〉 OECD 주요국의 국가별 대학(학사)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 비교(2010/2011년도 대비 2019/2020년도)

(단위: \$(PP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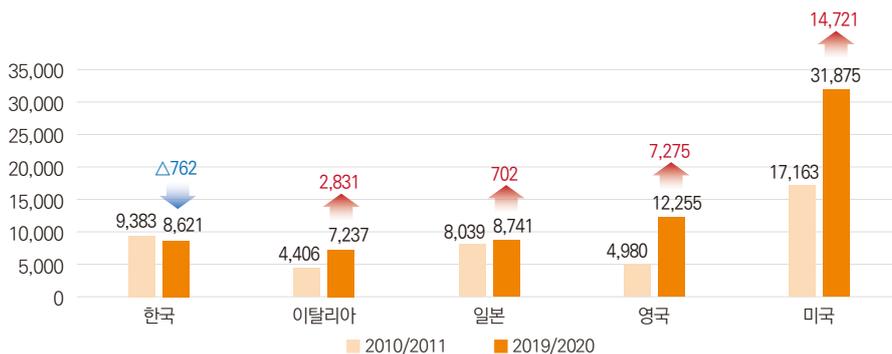
구분	2010/2011년도				2019/2020년도			
	등록금		전일제 등록 학생 비율		등록금		전일제 등록 학생 비율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한국	5,395	9,383	23	77	4,814	8,621	20	80
캐나다	4,288	-	100	0	4,924	-	100	0
프랑스	200~1,402	1,138~8,290	86	14	230	-	75	25
이탈리아	1,407	4,406	90	10	1,985	7,237	82	18
일본	5,019	8,039	25	75	5,144	8,741	21	79
영국	-	4,980	0	100	-	12,255	0	100
미국	5,402	17,163	70	30	9,212	31,875	74	26

주 1) 국가별로 사립대학의 유형에 차이가 있음(독립형 사립학교: 한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정부의존형 사립학교: 프랑스, 영국, 독립형+정부의존형: 독일)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정도에 따라 독립형(50% 미만)과 정부의존형(50% 이상)이 구분됨. 정부의 지시나 규제받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음
2) 프랑스 2010/11년도 국·공립대학의 최저 등록금은 고등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 과정이며, 최고 등록금은 계량심리학 학위 과정임. 사립학교(정부의존형)의 경우, 2010/11년도 최저 등록금은 가톨릭대학교, 최고 등록금은 예술학교 기준이며, 2019/2020년도는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워 평균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3) 영국(UK)은 England의 등록금만 적용함
4) 미국의 2019/2020학년도 등록금 및 전일제 등록 학생 비율은 2018/19학년도의 데이터임. 국·공립대학의 경우 내국인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을 기준으로 함
자료: <https://stats.oecd.org>(2023.03.28. 인출) OECD Education at a Glance(2022, 2021, 2019, 2013)



〈그림 2〉 OECD 주요국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 비교(2010/2011년도 대비 2019/2020년도)

주) 미국의 2019/2020년 등록금은 2018/19학년도의 데이터임



〈그림 3〉 OECD 주요국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 비교(2010/2011년도 대비 2019/2020년도)

주) 미국의 2019/2020년 등록금은 2018/19학년도의 데이터임

사립대학교의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 2011년 대비 2021년 9.2%p 증가

●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 수가 2011년 대비 2021년 76개교 증가(62개→138개)

- 실질 운영수익 대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의존율이 2011년 대비 2021년에 75.7%에서 70.2%로 감소함. 이는 등록금 수입 감소 규모가 실질운영수익 감소 규모보다 더 크기 때문**임

* 실질 운영수익은 수익총액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국고보조금을 적용한 금액임

** 포커스 3호 참조: 2011년 대비 2021년 등록금 수입 감소, 다른 수입은 비슷하거나 감소함. 반면,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제외)은 3.3배 증가함

-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은 2011년 66.7%에서 2021년 75.9%로 9.2%p 증가하였으며, 경상성 경비 비율 구간이 70% 이상인 대학은 2011년 대비 202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9.3%p로 크게 증가함(그림 4 참조). 경상성 경비 비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2개교로 모두 소규모 대학이었고, 2021년에는 수도권 4개교(대규모 1개교, 소규모 3개교), 비수도권 11개교(중규모 1개교, 소규모 10개교)로 증가함

〈표 3〉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실질 운영 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 변화

(단위: 억원, %, 개교)

회계연도	실질 운영수익(A)		경상성 경비(C)		실질 운영수익 대비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 구간(학교수, %)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B)		보수	관리 운영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의존율 (B/A*100)	경상성 경비 비율 (C/A*100)	70% 이상	90% 이상	전체 학교수		
전체	2011	145,961	110,554	66,711	30,694	75.7	66.7	62(39.2)	4(2.5)	158	
	2016	148,467	107,380	77,332	32,538	72.3	74.0	134(86.5)	12(7.7)	155	
	2021	145,251	102,007	77,874	32,380	70.2	75.9	138(88.5)	15(9.6)	156	
	'11년 대비 '21년	금액	△711	△8,547	11,163	1,686	-	-	-	-	-
		증감률	△(0.5)	△(7.7)	(16.7)	(5.5)	-	-	-	-	-
수도권	2011	84,383	62,379	38,893	16,680	73.9	65.9	22(33.8)	2(3.1)	65	
	2016	86,681	62,253	45,258	18,189	71.8	73.2	53(82.8)	2(3.1)	64	
	2021	81,739	58,618	43,453	17,446	71.7	74.5	54(83.1)	4(6.2)	65	
	'11년 대비 '21년	금액	△2,644	△3,762	4,561	767	-	-	-	-	-
		증감률	△(3.1)	△(6.0)	(11.7)	(4.6)	-	-	-	-	-
비수도권	2011	61,579	48,175	27,818	14,014	78.2	67.9	40(43.0)	2(2.2)	93	
	2016	61,786	45,127	32,074	14,349	73.0	75.1	81(89.0)	10(11.0)	91	
	2021	63,511	43,389	34,420	14,933	68.3	77.7	84(92.3)	11(12.1)	91	
	'11년 대비 '21년	금액	1,932	△4,786	6,602	919	-	-	-	-	-
		증감률	(3.1)	△(9.9)	(23.7)	(6.6)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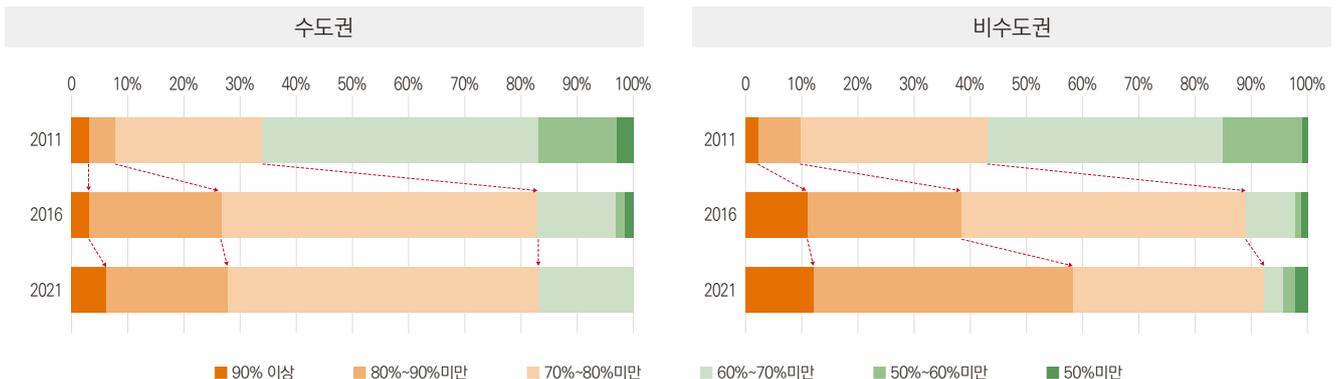
주 1) 공시대학 기준(일반대학, 산업대학 포함)

2)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대학원, 단기수강료 포함)

3) △는 (-)를 의미함

4) 실질 운영수익= 등록금 및 수강료+전입금+기부금+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제외)+산학협력단 학교기업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외수입

자료: 대학정보공시(23.05.04. 인출)



〈그림 4〉 사립대학교 실질운영수익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 분포 변화

2021년 사립대학 1개교 평균 운영수지 적자 규모: 비수도권 15억4천만원 vs 수도권 2억4천만원
 2011 대비 2021년 운영수지 적자 대학 비중: 수도권 47.7%p, 비수도권 48.0%p 증가

● 사립대학교를 권역별 규모로 세분화하여 운영수지에 따른 1개교 평균 운영 손익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대학의 운영수지 적자가 더 지속적이고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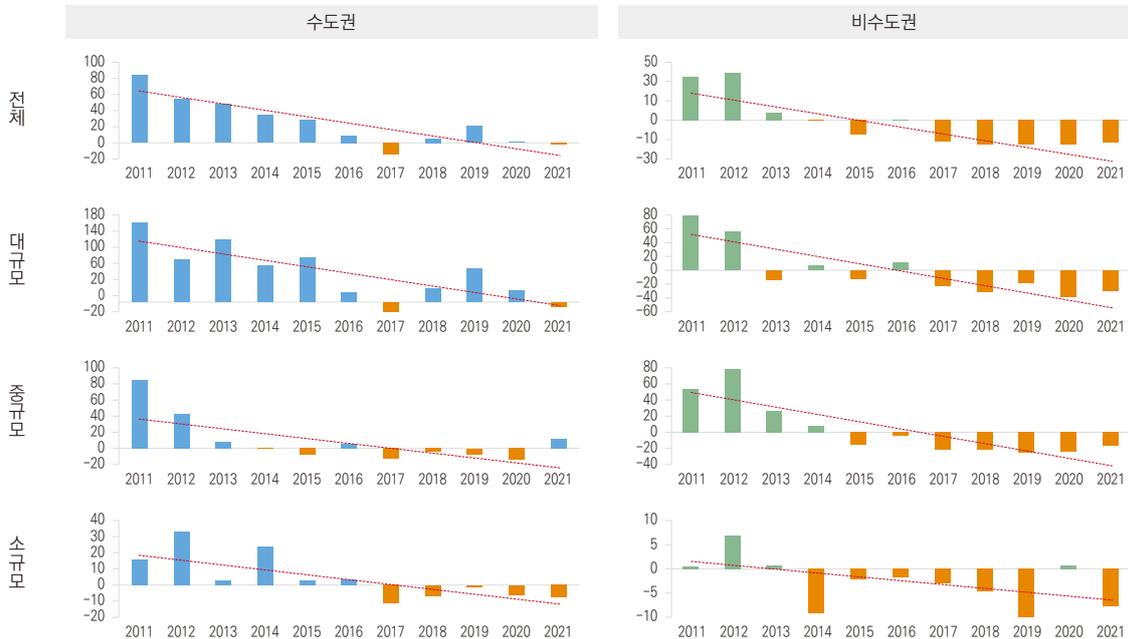
- 지역별 사립대학의 운영수지에 따른 1개교 평균 운영 손익 변화 추이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17, 2021년 운영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5] 참조)
-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낸 대학을 살펴본 결과, 2011년 대비 2021년 수도권 대학 중 적자 대학의 비중은 47.7%p 증가, 비수도권 대학은 48.0%p 증가하였음. 특히 중규모 대학에서 적자 대학의 비중이 크게 증가(수도권 67.4%p, 비수도권 66.5%p)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권역 및 규모별 1개교 평균 운영손익(당기운영차액) 변화 추이

(단위: 억원, 개교, %)

구분	연도	운영손익				적자 대학수/학교수(비율)			
		전체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전체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수도권	2011	84.0	164.0	85.0	15.5	15/65 (23.1)	3/22 (13.6)	3/17 (17.6)	9/26 (34.6)
	2016	9.0	19.6	5.5	3.3	40/64 (62.5)	10/20 (50.0)	12/18 (66.7)	18/26 (69.2)
	2021	△2.4	△9.8	11.8	△7.7	46/65 (70.8)	12/22 (54.5)	17/20 (85.0)	17/23 (73.9)
비수도권	2011	33.4	78.5	53.7	0.6	31/93 (33.3)	3/20 (15.0)	6/28 (21.4)	22/45 (48.9)
	2016	0.1	11.3	△4.3	△1.8	63/91 (69.2)	11/19 (57.9)	17/28 (60.7)	35/44 (79.5)
	2021	△15.4	△30.0	△17.3	△7.7	74/91 (81.3)	11/17 (64.7)	29/33 (87.9)	34/41 (82.9)

주 1) 공시대학 기준(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포함) 2) 규모: 재학생수 기준, 대규모: 10,000명 이상 /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 소규모: 5,000명 미만
 3) △는 (-)를 의미함 4) 운영 손익(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운영비용-기본급대체액+운영차액대체액
 자료: 대학정보공시(23.05.04. 인출)



〈그림 5〉 사립대학교 권역 및 규모별 1개교 평균 운영손익(당기운영차액) 변화 추이

Remark

대학의 **교육서비스 질제고**와 대학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 전략 수립 필요**

- 장기간의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수익 다각화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시급
-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 추세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향상 및 자율성 확대 필요